



문화 > 공연 · 전시

철사로 자연을 표현한다... '백아트 서울'서 최태훈 개인전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6-08-29 18:52 송고

최태훈 '철에 남긴 흔적' 설치 영상



철사를 뭉치고 자르고 구부려내 자연의 부드러움을 표현한 전시회가 열린다.

백아트 서울은 철의 연금술사 최태훈(51) 개인전 '철에 남긴 흔적'을 오는 30일부터 9월30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페이스칸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최 작가는 차갑고 단단한 느낌의 철 덩어리를 자신만의 기법으로 가공해 전혀 다른 속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꾸준히 선보였다. 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얇은 철사로 자연을 표현했다.

특히, 힘을 전혀 받지 못할 듯한 철선을 모아서 만든 원구형 조형물 '메탈 마크-1'는 소재가 철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부드러운 질감의 공처럼 보인다. 무게가 1톤에 가까운 이 조형물은 10톤 트럭으로 전시장에 겨우 설치할 수 있었다.

벽면에 설치된 작품 '메탈 마크-2'는 바람이 불고 지나가는 갈대밭의 한 순간을 멈춰놓은 듯 보인다.

최 작가는 "철에 남긴 흔적에선 녹록하지 않은 인간 삶의 무게와 존재적 가치를 표현하려 했다"며 "현미경을 통해 바라본 세포의 형태 속에서 일종의 우주를 발견하는 작업 과정"이라고 했다.

한편, 스페이스칸 갤러리는 백 아트(미국) 보두앙 르봉(프랑스), 초이&라거 갤러리(독일), 갤러리 수(중국) 등 4개국 갤러리가 연합해 개관한 전시장이다. 이들 갤러리는 해외에 한국 작가를 소개하고 해외 작가를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 스페이스칸을 운영하고 있다. 무료. 문의 (070)7782-7770.



최태훈 개인전 '철에 남긴 흔적' 전시전경 © News1



최태훈 개인전 '철에 남긴 흔적' 전시전경 © News1



최태훈 개인전 '철에 남긴 흔적' 전시전경 © News1



최태훈 개인전 '철에 남긴 흔적' 전시전경 © News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